



렘브란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1606-1669년), <군중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17세기, 동판화, 렘브란트 하우스,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성화
해설**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께서 양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해 주시면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연민 가득한 손길을 내밀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의 뒤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바라보며 놀라워하고 있다.

입당송 시편 54(53),6,8

제1독서 예레 23,1-6

화답송 시편 23(22),1-3,3,3,4-5,6(◎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끌고, 내 영혼에 생기를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에페 2,13-18

복음환호송 요한 10,27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음 마르 6,30-34

영성체송 시편 111(110),4-5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우리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으시는 예수님



안병철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진정 그들에게서 관심의 시선을 떼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마치 목자 없는 양들 같이 여겨져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서도 관심의 시선을 떼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서 관심의 눈길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 고백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의 피로를 어루만져 주시며 동시에 군중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은 정녕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에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도움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구차하게 손 벌리지 않고 또 굳이 도움을 주려고 애쓸 필요 없이 살면 그만이지 뭐, 안 그래? 나 하나 잘살면 그만이지.’

주변에서 가끔은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라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것이기를 바라면서도 이기적인 사고에 푹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안에 은연중 그런 식의 사고가 자리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네가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네. 그러니 자네 걱정이 나 하며 살게.’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도 더러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아니 세계 도처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 한두 군데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 나 혼자 발버둥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은가? 아니 지구촌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일인데 내가 나서서 될 일이 뭐 있을까? 그럴 바에야 나만이라도 시간의 여유를 갖고 살아야지. 설 줄도 알고 즐길 줄도 알아야지!’

오래 전 부터 이미 길들여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합리화 내지 정당화시켜보려는 그런 식의 알파한 논리야말로 더불어 살아야 할 세상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나만 잘살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신앙인들은 예외 없이 어느 누구에게서도 눈길을 떼지 않으신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음으로써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자리를 이제 우리가 대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릇 믿는 사람이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해 변화해가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마르 6,34).

말씀이 생활이 되기 위한 첫걸음



김희진 사비나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십여 년 전쯤, 남태평양의 파푸아뉴기니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다. 하느님이 바로 창조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아는 순박한 사람들, 2층 집 창문까지 날라온 닭, 목마르면 깨어 먹는 코코넛... 여러 가지 추억들이 생각난다. 하지만 그중에서 나의 기억에 확실히 남아있는 한가지는, 주일날의 모습이다. 평상시에 옷을 아예 벗고다니거나 간단한 옷차림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미사를 위해 성당에 오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예쁜 옷들을 입고 있었다. 마을주민 한 명한테 물어보았더니, 일요일 아침이면 몸을 깨끗이 씻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온다고 했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린다고 했다. 그날 미사에서 가장 꼬질꼬질한 모습에 반바지 차림으로 온 것은 한국서 온 우리 봉사단뿐이었다.

얼마 전 영국에서 주일미사를 드렸다.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는 성당이였다(영국은 상점들이 아니면 거의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버스나 지하철도). 나와 남편은 오전에 빨리 미사를 드리고 관광할 생각에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커다란 카메라와 배낭을 메고 성당에 들어섰다. 순간 나는 십년 전 파푸아뉴기니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그 더운 날씨에 남자들은 대부분 양복 셔츠에 넥타이를 하고 있었고 여자들은 모두 한껏 멋을 내고 와있었다. 어떤 할아버지는 영화에서나 볼듯한 옛 귀

족들이 쓰는 곱슬거리는 하얀 머리 가발을 쓰고 앉아계셨다.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미사는 1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가끔 몇몇 관광객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것 외의 모든 사람들은 미사에 진지하게 임했다. 신부님과 신자들은 서로 함께 호흡했고 모든 기도문 하나하나에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성가대는 이 모든 것들에 조미료 역할을 하며 자신들은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그 미사에서 거행된 2명의 아기에 대한 유아세례에 50명이 넘는 친지들이 함께 와서 축복해주었다.

미사는 나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여름만 되면 옷차림을 주의해달라는 '경고' 메시지가 담긴 한국의 주보가 생각났다. 미사 시간이 한 시간 넘게 되면 불평을 해왔던 한국에서의 내 모습이 스쳐갔다. 아무 의미 없이 기도문을 외고 있는 나를, 성가대에서 노래하면서 으쓱해 했던 나를, 주변에 누가 세례를 받아도 축하의 말 정도로 지나갔던 나를... 주일에 미사 드리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주님과 관계없는 내 모습이 보였다.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을 준비하고 그 시간에 충실하다면 선포되는 말씀이 내 생활 안에서 살아있게 되지 않을까. 정말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이런 생각들이 생각으로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 오늘 나는 미사의 기도문을 마음으로 읽도록 노력하고 있다.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29

착상 전 진단을 통해 배아를 선별하는 행위는 부도덕하다

“착상 전 진단은 인공 수정 기술과 연관된 일종의 태아 검진이다. 여기에서는 체외 수정된 배아가 자궁에 이식되기 전에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진단은 결함이 없거나 원하는 성별이나 다른 특정한 성질을 지닌 배아만 이식하기 위한 것이다...착상 전 진단은... 낙태의 행위가 되는 배아의 질적 선별과 이에 따른 배아 파괴로 나아가게 된다... 인간 배아를 단순히 ‘실험용 재료’로 간주함으로써, 인간 존엄의 개념 자체 역시 변형과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인간의 존엄 22항>.

착상 전 진단은 시험관 아기로 만들어진 여러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기 전에 검사를 통해서 결함이 없고 자신이 원하는 특성이나 성별을 지닌 배아만을 이식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인 임신의 태아 진단에서는 장애아를 받아들일 준비 기간을 마련해주는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인공수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착상 전 진단에서는 우생학적으로 결함이 있는 배아들을 선택하여 제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인간은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를 지녔더라도 동등한 인간으로서 차별받아서 안 된다는 인간 존엄성의 원칙과 생명권이 무너집니다. 우생학적 이유로 배아를 선별하는 행위는 인간을 실험재료로 생각하는 부끄럽고 비난받아야 할 태도입니다.

제14회 농민주일 담화문

생명의 가치는 나눌수록 풍요로워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열네 번째 맞는 농민주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농민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미국산 쌀의 수입확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미국산 쇠고기 수입, 비준을 앞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농민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 인구는 고령화되었을 뿐 아니라 총인구 대비 6.6%에 불과할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쉽고 편한 길을 가지 않고 생명에 대한 경외감으로 묵묵히 힘든 생명농사를 실천하는 농민들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생명농사는 친환경농업을 넘어서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바람과 물, 땅의 기운을 온전히 담아낸 유기순환적 생태농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생명과 환경을 동시에 살리고 먹을거리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가치를 온전히 담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가 1994년 시작한 ‘우리농촌살리기 운동’은 15년간 농업의 생명 가치를 알리고 위기에 빠진 우리 농업을 구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시 본당 공동체와 농촌마을 공동체 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 나눔과 자급되비 마련을 위한 소입식 지원을 통해서 유기 순환적인 생태농사로 진정한 생명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 본당과 농촌 마을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직

거래 나눔은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어두운 농촌 현실을 희망의 터전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농촌과 도시가 직거래 나눔을 통해 서로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가치를 나누는 데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함께 나눌수록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농촌과 도시의 상생 관계를 더욱 유기적으로 발전시켜 어떠한 환경의 변화에도 농민들이 안정적인 생명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농민들은 안심하고 생명농사를 짓고, 도시의 소비자들은 다소 비싸더라도 생명농산물을 기꺼이 구매할 때 생명의 가치는 점점 커지고 농촌은 희망의 터전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농촌과 도시는 단지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제적 관계가 아니라 함께 생명의 가치를 공유하고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은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시편 133,1)” 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신앙인들이 이처럼 한 형제가 되어 생명농산물을 나누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뜨거운 햇볕 아래서 묵묵히 생명의 양식을 전해 주는 농민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농민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농민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기꺼이 도농 직거래 나눔을 통해 농촌에 희망을 주는 도시의 소비자들에게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가치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도시와 농촌 공동체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을 빌며 우리 농촌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기산 주교

소식

오늘(7월19일)은 제14회 농민주일입니다.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 7월15일 허창덕 치로 신부(74세) 1992년, 용인
- 7월25일 김병호 베네딕토 신부(64세) 1984년, 용인

평화화랑 제2전시실: 지상덕 작품전

평화화랑은 '지상덕(에지디오, 창4동성당) 작품전' 을 7월22일(수)~28일(화)에 전시합니다. / 문의: 727-2336

천주교 서울대교구 직원 채용 공고

서울대교구 문정2동성당 여사무원 모집

- 대상: PC(엑셀, 한글 등) 및 회계업무 가능한 세례 받은 여교우 / 문의: 408-0179(8월2일까지 접수)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제출한 서류는 반환 안 됨, 면접은 개별통지함)
- 주소: (138-202) 서울시 송파구 문정2동 150-33

교구청 알림

수도회 성소모임

경찰서 유치장사목 봉사자 모집

- 대상: 유치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전 달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세례·건강 받은 60세 이하 교우) / 주최: 경찰사목위원회
- 문의: 723-9471(www.catholicpolice.or.kr)

7월 순교자들의 시복시성 기원미사

- 때: 7월21일(화) 오전 11시
- 곳: 명동성당 지하소성당
- 집전 및 강론: 김찬선 신부(작은형제회 원장)
- 문의: 2269-0413 순교자현양회

마리아의 종 수녀회

- 때: 7월26일(일) 오후 2시~4시
- 곳: 돈암동 본원 / 문의: 010-3065-8221

내 손이 필요할때 '도와줍니다.'

휴가철에 찾아갈 만한 피정의 집

마리아의 종 피정집: 031)227-8221

화성시 봉담읍 소재. 취사 가능한 콘도형 시설. 개인피정을 할 경우 요청에 따라 수 도자와의 영적 대화, 상담이 가능.

몬띠 피정의 집: 031)207-4982

수원시 장안동 소재. 자아발견, 대화 등의 심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봉사과 목상, 대화를 곁들인 가족 피정도 가능(www.mariasons.or.kr).

예수 성심 피정의 집: 010-4820-6955

인천시 강화군 소재. 단체피정 숙소 외에 개인과 가정 이용자를 위해 황토방, 통나무방 숙소가 준비되어 있음. 강화도 내 천주교 유적지 순례 가능(www.msck.or.kr).

풍수원성당: 033)342-0035

횡성군 소재. '리브레티' 등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유명함. 부설 피정의 집은 스키장에서 15분, 30분 거리에 있음. MT 장소로도 이용 가능(www.pungsuwon.org).

가리파스 피정의 집: 033)638-4004

고성군 소재. 설악산과 동해안이 가까워 창밖으로 해돋이 풍경을 볼 수 있으며, 콘도형 숙소가 준비되어 있음.

성심원 교육관: 055)973-3788

경남 산청군 소재. 개인·가족·소규모 숙박 가능하며, 수도자들에게 인생상담을 신청할 수 있음. 인근 하천에서 래프팅을 즐길 수 있고, 한센인 생활기관에서 자원 봉사도 할 수 있음(www.sungsim1.or.kr).

요나성당: 041)934-7758

대전해수욕장에 위치한 관광사목 성당. 콘도형 숙소가 준비되어 있으며, 성당 옆 솔밭캠핑장에서도 취사와 숙박이 가능(yona.djatholic.or.kr).

묵당 피정의 집: 011-9260-2927

횡성군 소재. 태기산 중턱에 위치해 대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음. 주변에 민가가 없어 침묵 속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음.

프라도의 집: 041)852-3281

공주시 계룡면 소재. 농사짓는 프라도회 수녀들이 마련한 휴식공간. 농촌공동체 방문과 계룡산 일대 관광 가능.

자인 피정의 집: 053)857-2037

경산시 자인면 소재. 가족 피정 가능. 계림숲, 청도 운보사 등 인근 명소 관광 가능.

연화리 피정의 집: 054)973-4835

칠곡군 지천면 소재. 한국적 분위기의 성당과 전통 찻집, 자연정원과 등산로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음. 요청에 따라 영성수련 교육 실시함(www.yeonhwaretreat.org).

영성의 집: 055)382-9465

양산시 어곡동 소재. 콘도형 가족피정 숙소로 야외 기도장소가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음. 부산, 울산과 가까워 인근지역 성지순례를 병행할 수 있음(fiat.pbcks.co.kr).

소록도 아기사슴 성당: 061)844-0528

고흥군 소록도 소재. 한센인 시설 방문, 소록도 관광을 함께할 수 있음.

성모승천 봉헌자 수녀회 피정의 집:

광주 금호동 소재. 숲 속에서 묵상과 기도를 할 수 있는 도심 속 휴식공간. 가족 MBTI 피정,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운영함. 062)371-0172(www.oacoree.com).

나바위성지 피정의 집: 063)861-9210

익산시 망성면 소재. 김대건 신부의 입국 기념 성당이 세워진 곳. 주방시설이 딸린 개인 피정의 집을 운영하며, 피정 중에 숲 정이, 여산 등 전북지역 내 인근 성지를 돌아볼 수 있음(www.nabawi.or.kr).

황토방 피정의 집: 061)373-3001

화순군 소재. 소그룹(12인 이하) 숙박 시설로, 취사 가능. 수도원 전례와 노동체험, 고해성사 및 면담을 할 수 있음.

면형의 집: 064)762-6009, 010-7172-6009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제주도 관광을 하며 수도회 전례 참여, 고해성사와 상담 가능. 제주도 비경과 천주교 성지순례를 곁들인 피정 프로그램도 소개받을 수 있음.

성 이시돌 젊음의 집: 064)796-7711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청소년 캠프, 수학여행 숙소로 이용 가능. 제주 성 이시돌 목장을 끼고 있어 자연경관이 수려함(cafedaum.net/jyouthhome).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의 '주교회의 보도자료 - 여름 휴가철 주요 피정지, 프로그램 안내' 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알림

모임

말씀치유 피정

· 강사: 차동엽 신부(회비: 1천원) / 322-5316
 · 때, 곳: 7월24일(금) 14시-17시, 가락동성당
젊은이셀 기도 모임(문의: 727-2391, 011-9224-1013)
 · 때, 곳: 매주(토) 14시30분-18시,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수녀회 성산동 분원(주최) / 미사있음

호산나 어린이 피정

· 때, 곳: 7월24일(금) 10시(접수)-25일(토),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회비: 3만5천원(예약접수)
 · 문의: 010-4211-7383, 010-8505-2168 삼성산 성령수녀회
작은 예수회 치유 기도회(문의: 016-309-0048)
 · 미사: 박성구 신부(치유: 이명환, 마일택)

· 때, 곳: 매주(화) 13시-17시, 작은 예수회관(전철 5·7호선 군자역 6번 출구, 농협 지하)
삼성산 사랑의 성령봉사회 철야 기도

· 때, 곳: 매주(화) 22시30분-4시,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874-6346, 011-277-0317 삼성산 사랑의 성령봉사회(강론은 2명만 가능하며 매주 바뀜)
삼성산성지 성모승 2천원 기도회

· 지도: 송광섭 신부(면담과 미사) / 874-6346
 · 때: 7월20일(월), 27일(월) 오전 9시30분-17시
 · 곳: 삼성산 피정의 집(주최) 대강당 / 011-277-0317
2009 가톨릭적 대안교육 연구

· 대상: 교사, 학부모 및 대안교육 관계자(2010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안내 있음) / http://yangeob.hs.kr
 · 때, 곳: 8월14일(금)-15일(토) 1박2일, 양업고등학교(주최) 인성교육관(회비: 5만원) / 043)260-5076, 8
작은예수회 성령봉사회 7월, 8월 여름 대가족 산피정

· 매봉산과 연인 산의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가평군 하면마일 1리 102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피정(중식제공)
 · 강사: 유명 강사진, 박성구 신부, 신상욱(말씀과 찬양)
 · 때: 7월24일(금)-26일(일) 2박3일, 8월28일(금)-30일(일) 2박3일 / 010-6255-0155, 010-7764-3885
제주 성 이시들 피정센터(문의: 773-1455)

제주 피정	메일미사, 삼피초 은총의 동산 기도회 말씀, 성지순례, 자연과 함께 8월1일-4일, 8월7일-10일, 8월16일-19일, 8월23일-25일
삼위일체회 피정	7월20일(월) 9시30분-12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강사: 홍부회 신부 / 처음오는 분께 5만 목주드림

예수마음 배움터(일산 근교) 피정

· 문의: 031)946-2337, 8(www.jesumaum.org)
예수마음 기도피정
 2박3일(8월22일(토)29일(월), 9월18일(금)20일(일)) 7시30분 시작, 15시 마감
 4박5일(8월31일(월)-7일(일), 8월26일(수)-30일(일)) 14시 시작, 14시 마감
 8박9일(8월10일(월)-18일(화), 9월18일(금)-26일(일)) 14시 시작, 14시 마감
에어리얼
 대상: 일반 신자 및 수도자, 성직자
 8월9일(토)9일(일), 9월5일(토)6일(일) 15시30분 시작, 17시 마감
 위탁과정: 40명 이상 / 당일, 1박2일 4박5일 가능
 자체연수 및 피정: 30명 이상 / 당일, 1박2일-10일까지 가능

교육

성령선교수녀회 젊은이 프로그램

· 주제: '빛내음' 떼제 기도모임 / 010-5730-6322
 · 때: 매주(월) 오후 7시30분 / sspskorea.org

잠실가정폭력상담소 프로그램(문의: 2202-7806)

부부캠프	부부가 함께 건강한 갈등 해결 기술을 습득하는 캠프 9월19일(토)-20일(일) 1박 2일
부부대학교	집단상담 / 비폭력 대화 기술 습득 9월8일-11월24일 매주(화) 19시22시 1박2일(캠프포함)

진애인 아동·가족치료연구소(문의: 587-9207)

· 시목상담자 양성 교육: 가톨릭가이성심리, 상담심리, 가족치료, 심리검사(가톨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교육수련 인정)
 9월7일-12월14일 매주(월) 10시-17시
 전문심리치료, 음악치료, 개인(별안, 우울, 대인관계 부작용) 부부가족간 갈등
 청소년·성인 심리검사: 성격, 정서, 인지, 자존, 학습유형과 진로탐색 등

청소년을 위한 성령세미나 루하(청년성령새신봉사회)

· 때: 7월31일(금) 14시-8월2일(일) 17시 / 회비: 8만원
 · 곳: 성령새신봉사회관 3층(구 신림동) / 866-6345, 016-9876-4721(www.holyspirit.seoul.kr)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 미술치료 1, 3, 4, 5단계

· 교육기간: 9월4일-12월2일 매주(토) / 032)830-7004
 · 접수: 8월28일(금)까지(www.iccu.ac.kr/life)
 · 곳: 송도 국제도시 캠퍼스(인천 연수구 송도동 93)

서울 가리파스 알코올 상담센터 프로그램

· 술 때문에 고통받는 의존자 및 가족을 도움 (http://cacc.or.kr)
 · 무료 상담 및 문의: 521-2364, 2577(내방 10시-17시)

의존자 프로그램	술을 끊고 싶은 분을 위한 자문 및 야간 프로그램 운영
가족 프로그램	가족대상 교육 및 상담 실시 자녀 모임 운영: 매주(화) 오후 7시30분

맑은샘 심리상담 연구소

· 원하시는 분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음 / 385-6494
 서울, 031)702-1897 분당(www.selfind.com)

자녀심리프로그램	8월5일(수)-9일(일) 4박5일 / 회비: 54만원
집단심리상담	8월19일(수)-23일(일) 4박5일 / 회비: 54만원
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심리검사/이동 청소년상담 및 놀이치료	

매종 프로그램(발달 상담/임상 및 긴장심리센터)

· 문의: 011-219-2059 / 전철 2호선 강남역 3번 출구

전문진	잠점이 많아 집중을 못하거나 자기주장이나 분노표현을 조절하지 못하여 부적응 상태 학생이나 성인, 스트레스
종합심리평가	를 조절하지 못하는 학생 및 성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상담, 심리치료	하지 못하는 학생 및 일반인, 부부 및 고부갈등이 심한 가족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성의회관) 수강생 모집

학점은행제	7월27일(월)-8월21일(금)까지 접수 사회복지학 전공 학사학위 취득,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심리학 전공 학사학위 취득
자격증과정	미술심리지도사과정 8월10일(월)-9월4일(금)까지 접수

· 문의: 2258-7737, 8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성의회관 601-1호 평생교육원 운영팀(서초구 반포4동) / http://songsim.catholic.ac.kr/~cukcedu/

살레시오 사회교육문화원 프로그램

· 문의: 844-0388(www.salesioedu.com)

SS독서미디어 학교	독서를 통한 학습준비 진단 및 가치관 탐색 8월15일(토)-16일(일) 10시-17시
중·고2(SS 리더교육)	숨은 리더십 개발과 참 '나'를 찾는 과정 둘레·넷째(토) 9시30분-12시30분(8회) / 8월22일(토) 개강
교과독서논술	교과독서논술 중1, 문학논술 중2, 주제통합논술 중1·중2·중3·고등학생(16회 수업) / 8월24일(일) 개강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문의: 726-0700)

· 미음의치유와 성장을 위한 웰빙강좌: 9월-12월 셋째주(금) 2학기 심리 발달과정 이해와 상처의 치유, 마음훈련
 전·진·상 심리상담자 양성과정: 9월7일-12월14일 매주(월) / 수업 15주(가톨릭 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자격과정 수련인정)
 상담이론과 신앙의 통합적 이해를 돕고 마음훈련과 상담기술을 익혀 자기 자신, 가정, 교회공동체의 치유와 성장에 기여(2년과정, 2학기 등록가능) / 홈페이지: www.jxcen.or.kr
 지이성정진단: 8월9일-9월24일 매주(목) 오후 7시30분-9시30분 심리 발달과정 이해와 상처의 치유, 마음훈련

모집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상계요양보호사교육원 수강생 모집

· 문의: 6401-9950(담당: 김테레사)

가톨릭 다도회 가을 학기 남녀 수강생 모집

· 내용: 차생활과 예절교육(기초과정)
 · 개강: 9월7일(월) 주 1회 / 3673-5668, 010-5080-9459

'가톨릭 한마음 공동체 나눔의 집' 봉사자 모집

· 서울역 인근의 쪽방, 행려인, 노숙인에게 365일 점심을 무료급식 함(주방과 배식을 담당할 남녀 자원봉사자 모집) / 3789-5425(지도: 조창수 신부)

재속 전교 가르멜회 회원 모집

· 대상: 전교가르멜수녀회의 은사(관상과 사도직)에 따라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1960년 이후 출생한 남녀 교우, 영세후 5년이상 견진 받은 분(9월 8일까지 접수) / 363-6317, 010-2020-1931 심기중

평화신문 판매관리 사원 모집

· 대상: 교우로서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7월 23일까지 접수) / 2270-2525-7(www.pbc.co.kr)

세종유치원(세종로성당) 조리사 모집

· 대상: 가톨릭 교우, 조리사자격증 소지자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이메일로 서류 제출 후 면접은 전화 연락) / sejong1475@hanamil.net
 · 근무시간: (월-금) 8시30분-17시30분 / 733-1475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미사

· 대상: 신우회 회원 및 관심 있는 교우 / 753-0815
 · 때, 곳: 7월22일(수) 10시30분, 명동성당 내 소성당

신당복지관 자원봉사자·후원자 월례미사

· 때, 곳: 7월20일(월) 오후 2시, 신당종합사회복지관(주최) 2층 강당 / 문의: 2231-1876-9

오기선 요셉 장학회 월례미사

· 대상: 모든 교우 / 2299-2296, 011-202-5145
 · 집전: 황인국 목사님, 오용진 신부 외 사제단

· 때, 곳: 7월23일(목) 오후 3시, 명동성당 별관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구일기도와 미사

· 내용: 구일기도 및 강의, 미사 전후에 교해성사
 · 때, 곳: 7월20일(월) 오후 2시, 수유1동성당
 · 구속주회 본원: 매주(토) 오전 11시
 · 문의: 598-1312, 010-4189-5755 구속주회 신부

서울경기 성모신심미사와 다락방 기도

· 미사: 김종일 신부(메시지 모음, 기도공동체 성가, 묵주 준비) / 017-321-1247 다락방 봉사회

· 때, 곳: 7월27일(월) 9시30분-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꽃부원 및 스텝과다 봉헌성 있음)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후원회 미사와 영성강좌

· 주제: 성모님 안에서의 마음 상처 치유(구원도 신부)
 · 내용: 미사, 영성강좌 / 793-2070, 010-8820-5560
 · 때: 매월 셋째주(월) 10시30분-12시50분
 · 곳: 한남동 프란치스코 수도원(구 단국대 옆)

안내

국내입양 전문기관(해성보육원)

· 입양상담 및 미혼포 상담(샬트르 성마로 수녀회 운영) / 032)875-3240(www.hschild.or.kr)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문의: 582-6004, 6012)

· 기관 신축·단기보호센터 입소자 추가 모집
 · 방문요양, 방문목욕 대상자 추가 모집

전·진·상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 보건복지가족부 서울시 지정 말기암환자 전문 의료기관 / 문의: 802-9313 전진상 의원

소재: 금천구 시흥동 호스피스 센터

제12회 슈발리에 축제(예수성심전교 남녀수도회)

· 대상: 미혼 청년 남녀(선착순 70명)
 · 때, 곳: 8월14일(금)-16일(일), 부산 수녀원
 · 회비: 4만원 / 010-9330-3104, 010-4846-6956

니눔의 전화(전화상담)

· 가정문제, 부부갈등, 청소년 문제, 정신건강, 위기 상담 등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상담 / 752-4411, 4413

· 매주(월-토) 10시-21시30분(일·공휴일 휴무)

성 음악 연주(한국 세실리아 성 음악 협회)

· 내용: 그레고리오 성가, 오르간, 지휘, 발성, 작곡 등
 · 주제: 2002년 로마미사 전례서(강사: 최효영 신부 외 12명) / 338-8978(www.cecilkorea.org)

· 회비: 20만원(접수마감일까지 입금시 1만원 할인)

· 때, 곳: 8월17일(월)-20일(목), 가톨릭대학교

※교회단체 '알림' 게재 안내

· 전화: 727-2033 / 팩스: 753-6006
 · E-mail: jubo@seoul.catholic.or.kr

서울대교구 출판기관인 가톨릭출판사에서 매월 셋째 주 '문화마당' 란을 통해 신간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제의 해' 를 맞아 「아르스의 성자 성 비안네 신부」가 새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의 멸시에도 굴하지 않고
사제가 되려는 꿈을 좇아 평생을 인내와 겸손,
사랑과 고행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며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착한 목자,
성 비안네 신부의 일생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꿈이 없는 삶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며,
하느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
성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듯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자기 안의 성성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줍니다.



아르스의 성자 성 비안네 신부

미셸 드 생 피에르 지음 | 심 바오로 옮김
9,000원 | 268면 | 148×210

신간 도서

영적인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면 단순하면서도 견고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이에 대해 명료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오랫동안 강의해 온 강좌와 그동안의 연구로 얻은 영성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명확하게 정리해 알려 줍니다. 특히 단순하면서도 견고한 기도 생활을 해 나가는 방법과 매일 성찰할 수 있는 묵상 자료를 제시하여 하느님을 찾는 이들의 여정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지침서

매일매일 단순하게

로버트 J. 워스 지음 | 이종승 옮김
9,000원 | 224면 | 140×205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단비처럼 내려진
매일의 전례에 따른 묵상과 기도, 21세기 하느님 이야기



당신의 아침을 여는 말씀지기

96면(한글판) · 80면(영문판) | 각 권 900원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구성된 월간 묵상집입니다. 매일의 전례에 따른 성경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한 '30일 묵상', 사제들의 자아 성찰과 단상을 솔직 담백하게 담아 놓은 '아침 뜨락', 그달의 주제에 맞는 가르침이나 인물을 심도 있게 탐구하는 '영성 에세이' 등 묵상과 기도에 대한 색다른 시선을 제공하는 칼럼들로 채워져 있어 하루하루 하느님을 향해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가톨릭출판사 * 영업팀 02-360-9139, 9172 * 인터넷 가톨릭서점 www.catholicbook.kr

피아노와 플룻으로 만든 그림연극

· 입장권: 2만5천 원(R석) | 공연시간: 화~금 16시 / 토~일 11시, 14시
· 예매 및 문의: 777-4257, 8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피아노와 플룻으로 만든 그림연극이 7월17일 (금)~8월2일(일),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공연한다. 다양한 특수 효과와 영상으로 표현하는 무대가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또한 클래식, 재즈, 팝, 동요 등 다양한 장르의 라이브 연주와 조화를 이뤄 마치 그림 동화를 보는 듯 상상의 세계를 선보인다.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4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

해설과 함께하는 청소년 음악회 '귀에 익은 클래식VI'

· 입장권: S석 2만 원, A석 1만 원
· 예매 및 문의: 070-7503-1906 영산아트홀



영산아트홀 10주년 기념 '해설과 함께하는 청소년 음악회 - 귀에 익은 클래식VI'가 8월5일 (수) 오후 7시30분, 영산아트홀에서 있다. 이날은 클래식 인 피겨와 피아노의 숲 테마를 가지고 신정동성당 성가대 지휘를 맡고 있는 피아니스트 황재선이 김연아의 '죽음의 무도' 등의 곡을 연주한다.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3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